



NEWS LETTER

2020년 7월 6일 Vol. 377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제8차 적정성 평가에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 최우수병원’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248개소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위험 질환이며 무엇보다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주요 10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뇌졸중 치료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진단과 신속한 치료 및 재활치료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종양환자의 가임력 보존’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종양환자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4층 중강당에서 교직원 및 동국대학교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종양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주제로 산부인과 심유진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유진 교수는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기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등의 질병의 진행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노화 등으로 인해 난소 기능의 저하가 예상될 때 가임력 소실을 사전에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임력 보존 클리닉에서는 각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기반한 가임력 평가 후 가임력 보존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추적 관리와 향후 해동을 통한 임신 시도를 통하여 보존 시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외과 광범석 교수(암센터장)는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되면서 장기 생존자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젊은 여성암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되었다”고 말했다.



간호부 ‘2020 교육책임간호사 위촉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지난 7월 1일 ‘2020년 하반기 교육책임간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육책임간호사제도는 간호직원 교육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1년 9월 운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일정한 자격 기준 내에서 교육책임간호사를 위촉하여 정기 순환 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총 23개의 부서에서 교육책임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위촉 대상은 총 21명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해원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임성우 한방병원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책임간호사 영상소개와 함께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 7월 1일부터 실시된 ‘2020 교육책임간호사 휴게시간 보장 활동’에 대한 활성방안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영숙 간호부장은 “힘든 시기에 우리 병원의 허리와도 같은 교육 책임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육책임간호사로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부는 2021년 4월 교육책임간호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6월 25일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일일 카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이벤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동 내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의 휴식과 정서적 감정 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커피와 수제 간식 등 다양한 다과를 준비했다.

일일 카페에 함께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일상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상연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한 면회객 제한 등 활동 제한이 많아진 시기에 잠시나마 환자들이 아픔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앞으로도 감염관리 수칙을 잘 이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